

현시기 국제무역에서 쌍무적협상의 증대와 그 요인

고은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 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대외무역을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역상대국들과의 무역협상을 옹바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현시기 국제무역협상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협상형태의 변화와 그 요인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는것이 필요하다.

국제무역협상은 협상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수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다무적무역협상과 두 나라사이에 진행되는 쌍무적무역협상으로 구분할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진행되는 무역협상과 지역적범위에서 여러 나라들사이에 진행되는 지역내 무역협상들이 다무적무역협상의 전형적인 실례들이다. 그리고 쌍무적무역협상의 실례로서 싱가포르-칠레자유무역협정 등을 들수 있다.

현시기 국제무역협상에서는 다무적협상에 비하여 쌍무적협상이 중시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쌍무적무역협상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1990년대 전반기까지 국제무역에서 다무적협상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쌍무적무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있는것이 국제무역협상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변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현시기 국제무역에서 쌍무적협상의 증대는 우선 세계무역기구성원국들이 쌍무적협상을 적극 추진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제2차 세계대전후 가트와 세계무역기구는 다무적무역협상을 통하여 불공평한 국제무역질서를 세워놓고 다른 나라들 특히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의 막대한 재부를 약탈하여 폭리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다무적협상을 통한 《다자주의》방식이 저들의 지배주의적야욕을 실현하는데서 효과가 적고 구속력도 약하다는데로부터 《량자주의》방식에 치중하고있다.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쌍무적무역협상에서 《자유로운 그러나 공정한 무역》원칙을 내세우면서 상대국상품들의 자국내 시장점유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있다. 반면에 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국시장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취할수 있도록 일방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무역분야에서 배타주의적이며 약탈적인 무역정책을 강행하고있다. 무역협상정책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2017년에 들어와 더욱 뚜렷해지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침체, 국제무역분야에서 날이 감에 따라 악화되는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로서 쌍무적무역협상을 통한 리기주의적야욕실현에 매여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캐나다나 미국과 경쟁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쌍무적협상을 추진하여 칠레, 코스타리카

가 등과 쌍무적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북아메리카지역에서 특징적인것은 일단 미국이 특정한 나라와 쌍무적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있는 다른 나라들 역시 경쟁적으로 그 나라들과의 쌍무적협상을 추진한다는것이다.

유럽동맹은 지역내 나라들의 통합과 동맹확대에 따른 지역외 나라들의 경제심을 진정시키는 한편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 남아메리카의 메르코스르(MERCOSUR),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등 여러 지역적경제협력체들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밖의 나라들과의 쌍무적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유럽동맹은 신아시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립각하여 동아시아나라 및 아세안성원국들과 경제통상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지역내 기업들의 아시아에로의 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고있다. 또한 유럽동맹은 유럽-로씨야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로씨야수뇌자회의를 반년에 한번씩 진행하는것을 비롯하여 로씨야와의 쌍무적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현시기 국제무역에서 쌍무적협상의 증대는 또한 지역적범위의 다무적무역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이 쌍무적무역협상을 활발히 추진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적협조기구들이 출현하여 무역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역적무역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은 지역나라들과의 쌍무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지역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데로부터 쌍무적협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의 성원국인 메히꼬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쌍무적무역관계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 나라는 꼬스파리카, 볼리비아, 니까라과, 칠레, 유럽동맹,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들을 체결한것을 비롯하여 중남아메리카의 과떼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메르코스르의 각 가맹국들과의 쌍무적무역협상관계도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63년에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에 가입한 꼬스파리카는 그후에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쌍무적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성원국인 싱가포르는 2000년 9월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조인하였는데 이것은 아세안성원국이 지역밖의 나라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였으며 그후 이 나라는 메히꼬, 캐나다, 미국, 일본, 칠레,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파나마, 페루 등의 나라들과 쌍무적무역협상을 추진하였다.

현시기 국제무역에서 쌍무적무역협상이 중시되고있는 요인은 무엇보다먼저 국제무역분야에서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영향력이다.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은 민족경제발전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1988년~1997년과 1998년~2007년의 두차례에 걸친 10년주기에 발전도상나라들의 국내총생산액의 년평균장성률은 각각 4.1%, 5.9%로서 세계적인 평균수치(각각 3.4%, 4.1%)를 룡가하였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각각 2.9%, 2.6%)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2000년부터 2012년사이에 세계총생산액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차지하는 몫은 23%로부터 40%로 증대되었다.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무역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2000년~

2012년기간 세계무역총액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몫은 33%로부터 48%로 높아졌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무역량에서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를 비롯한 주요발전도상나라들이 차지하는 몫은 같은 기간에 6%로부터 12.8%로 늘어났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발전도상나라들은 국내경제발전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으며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오늘날 민족경제가 발전하고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무역협상에서 보다 강화된 영향력으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맞서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은 경제적토대가 미약하고 국제적협상무대에서 영향력이 약한데로부터 제국주의나라들의 집단적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기대를 가지던 다무적무역협상의 본래의 목적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무역발전에 저해를 주는 인위적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여 해당 나라들의 민족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다무적무역협상의 목적을 악용하여 협상참가국들의 각이한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함으로써 다무적무역협상이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자본주의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발전도상나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는 수단으로 전략되였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무역협상에서 자기들의 요구와 리익을 내세우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였다. 그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다무적협상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요구와 리익을 보다 더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쌍무협상을 중시하고 추진해나가고있다. 결과 오늘날 다무적무역협상은 그 앞날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많은 나라들이 쌍무적무역협상을 중시하는데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였다.

현시기 국제무역에서 쌍무적무역협상이 중시되고있는 요인은 다음으로 최근 다무적무역협상이 드러내고있는 취약성에 있다.

현시기 다무적무역협상의 취약성은 협상기간이 오래고 타결가능성이 적으며 이룩된 합의가 원만히 리행되지 않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다무적무역협상은 우선 협상기간이 매우 오래다.

다무적무역협상의 기간이 매우 오랜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에서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세계무역기구의 도하라운드협상을 보고 잘 알수 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뽀따 델 에스떼에서 진행된 GATT에 가입한 105개성원국 각료회의(상급회의)에서 우루과이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발기된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시장개방문제, 봉사문제, 관세문제, 무역금융문제, 분쟁처리문제 등과 관련한 성원국들의 리해관계의 대립과 모순으로 하여 계속 미루어오다가 8년만인 1993년 12월에 겨우 합의에 이르게 되였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의정서》의 채택으로 시작된 도하라운드는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진행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식량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허용하는것을 비롯하여 도하라운드의 일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으며 나머지협상문제들을 2014년말까지 타결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이

록된 합의는 도하라운드에서 시작되어 13년만에 이룩된 첫 합의인 동시에 1995년 세계무역기구설립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세계무역기구성원국들사이의 다무적협상합의로 된다.

다무적무역협상은 또한 합의가능성이 적다.

세계무역기구는 세계적범위의 무역기구로서 성원국들의 경제 및 무역발전수준이 각 이하고 기구내에서 논의하는 문제에 대한 리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다무적무역협상의 폭과 내용이 심화될수록 그에 대한 성원국들의 견해일치는 거의나 불가능하다. 지난 시기에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력이 약한데로부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요구가 쉽게 실현되면서 협상타결이 비교적 가능하였지만 위에서 분석한것처럼 발전도상나라들의 협상능력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타결가능성이 더욱더 희박해지고있다.

다무적협상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와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마찰은 협상의 제를 둘러싼 쟁방간의 대립과정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세계무역기구설립직후인 1996년에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 제1차 각료회의때부터 저들의 리해관계만을 반영한 일명 《싱가포르문제점》이라고 부르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등의 문제들을 세계무역기구협상의제로 포함시키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논의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3년 9월 메히꼬의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인디아, 브라질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협상집단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내세우는 《싱가포르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면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농업보조금을 철폐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제5차 각료회의는 아무런 결실도 없이 끝났으며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제6차 각료회의에서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할수없이 양보하여 성원국들이 2013년말까지 농산물수출보조금을 전부 철폐하며 목화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2006년말까지 폐지한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무적무역협상은 오랜 기간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협상타결의 가능성이 매우 희미해졌다.

다무적무역협상은 또한 그 합의결과가 원만히 리행되지 않고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협상결과의 철저한 리행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협상에 참가한다. 협상의 리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협상에 더이상 참가할 필요가 없으며 나라들사이의 협상은 존재할수 없다.

현시기 자본주의세계에서 거듭되는 경제위기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보호무역주의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있으며 자국의 리해관계를 우선시하는데로부터 자유무역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이룩된 다무적무역협상의 합의내용들이 무시당하고있다. 캐나다,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유리할 때에는 다무적무역협상에서 체결한 합의의 철저한 리행을 운운하다가도 일단 불리해지면 합의내용을 서슴없이 무시하고 자국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리기주의적인 행동으로 하여 오늘날 다무적무역협상은 그 리행을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이런데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효과성이 낮고 그 리행이 담보되지 않는 다무적무역협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협상내용이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계약쑥방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쌍무적무역협상을 중시하고있다.

현시기 국제무역에서 쌍무적무역협상이 중시되고있는 요인은 다음으로 다무적협상에

비한 쌍무적협상의 우점이다.

쌍무적협상은 협상시간과 비용, 협상문제의 범위와 내용, 협상결과의 리행담보 등의 측면에서 다무적협상에 비한 우점을 가지고있다.

쌍무적협상은 우선 협상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 참가국의 수가 많고 이질성이 커서 협상타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다무적협상에 비해 쌍무적협상은 보다 쉽게 타결할수 있다.

쌍무적협상은 또한 협상에서 논의하는 문제의 범위가 넓으며 내용이 구체적이다. 쌍무적무역협상은 논의되는 문제의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다무적무역협상보다 폭넓고 심도가 깊다. 다무적무역협상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봉사,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룩할수 있으며 협상국들사이의 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나 비관세장벽의 실질적제거 등을 통해 전면적인 시장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쌍무적협상은 또한 협상결과의 리행이 담보된다. 두 나라사이의 무역관계에서 나서는 문제를 두 당사자가 자원성의 원칙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하였으므로 그 리행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호상통제가 가능하다.

물론 쌍무적무역협상의 이와 같은 우점들은 비단 오늘날에 와서 생겨난것이 아니며 쌍무적협상의 고유한 속성들이다. 그러나 쌍무적협상의 이러한 우점은 우에서 언급한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면서 현시기 국제무역협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쌍무적협상을 중시하고 적극 추진시켜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부각되고있다.

오늘 국제무역에서는 쌍무적협상을 통하여 나라들사이의 무역관계가 밀접해지고 적극 발전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쌍무적협상을 발전시키는것을 무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하고있다.

우리는 현시기 국제무역협상에서 중시되고있는 쌍무적협상의 내용과 발전추세, 협상형태변화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잘 알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상을 주동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대외무역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제무역, 쌍무적협상